

# 第13回「國際에 디슨誕生日記念祝典」參加記

## 〈特急 世界一周記・第3部〉

社團法人 大韓電氣協會

事務局長 太 仁 善

### 〈데트로이트(Detroit)〉

深夜의 데트로이트空港에는 Cisler 氏가 보내준 Detroit Edison 會社의 車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한쪽 손을 번쩍 들면서 “Mr. Tae?” 하고 소리치는 健壯한 體軀의 黑人 運轉士의 幅넓은 몸짓과 구김살 없는 微笑가 뉴우욕空港에서 Rowland 氏로부터 받은 첫 印象과 너무나도 恰似하다. 美國式 開放性和 率直性에는 그런대로 익숙해져 있는 處地에 새삼 新奇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유럽人」과 「美國人」의 人間型의 差異라든가 이의 背景이 되었을 여러가지 要因 中에서 特別히 歷史의 年輪의 隔差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宿所인 Detroit Athletic Club에서 旅裝을 풀고 보니 時間은 이미 17日 午前 4時에 가깝다. 過히 무겁지도 않은 단출한 나의 짐을 숨을 몰아 쉬면서 房까지 運搬해 주는 늙은 黑人 보이의 倦怠로운 無表情이 런던空港에서 본 印度人 掃除婦들의 諦念어린 沈默과 同質의인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면 이것은 無知와 貧困과 賤待의 重壓 밑에서 한번도 기를 펴고 살아보지 못한 고달픈 歷史를 엮어 내려온 不幸한 人間들의 後孫만이 느낄 수 있는 回顧趣味의 感傷이라고나 規定할 것일까?

若干 厚하게 껴어준 팁에 對하여 鄭重하게 謝意를 表하고 便宜한 休息과 快適한 旅行을 바라노라는 老黑人의 人事말의 表現과 發音이 正確한 “King’s English”이였음은 그런대로 하나의 즐거운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4月 17日.

電話벨 소리에 假睡에서 깨어나 受話機를 드니 品位있는 女性의 목소리이다. Cisler 氏의 秘書 Miss Lehman이라고 自己紹介를 한 다음 美國 滯留日程表를 이리이러하게 짜 놓았는데 어떻게든 나는 이야기이다. 不必要한 語句를 찾아 볼 수 없는 簡單明瞭한 通話이면서도 禮儀와 親切에 疎忽함이 없는 意思傳達方式이 「美國式 能率主義」가 몸에 배인 洗練된 職業女性像을 그려보게 만든다.

指定된 時間에 로비로 내려가니 오늘의 案内役을 맡은 Detroit Edison 會社의 Howard Canfield 氏가 들어선다. 氏는 駐韓 USOM의 電力局長으로 多年間 勤務한 分으로서 韓電의 前職 및 現職 高位幹部 여러분과 特別히 親분이 두터운 知韓人士이다. 韓國의 親知들의 安否를 묻고 旅行의 疲勞를 걱정해 주는 氏의 鄭重하면서도 親近한 態度는 차분한 性格과 圓熟한 年輪의 所産인 듯, 「데트로이트駐在 韓國大使」라고 당신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하였다더니 「그건 榮光이군요!」하고 웃는 얼굴이 荳顏처럼 활짝 개인다.

氏의 車로 한바퀴 돌아본 데트로이트市の 印象은 于先 黑人이 많다는 것. 美國의 總人口 2億 中에서 黑人이 차지하는 比率은 約 11%로 나타나 있는데 對하여 데트로이트의 黑人人口는 約 43%로서 聯邦 首都인 워싱턴의 過半數를 除外하고는 黑人人口의 比率이 가장 높은 都市 中의 하나라고 한다. 工業都市로 黑人人口의 集中으로 白人들은 郊外의 田園地帶에 住宅地區를 形成하여 移住하는 傾向이 顯著해졌으며 이로 因하여 office hour 아닌 夜間이나

休日 等에는 黑白人口의 比率이 逆轉되어 버리는 都市가 바로 이 메트로이트라고도 한다.

시원스럽게 四通八達한 넓은 道路는 그 單調로움을 배꾸어 주기도 하는 綠地帶를 근데근데 가지고 있는데 시름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群像들의 大部分이 검은 皮膚의 人種들이라는 事實은 美國이라는 巨人國의 “아킬레스腱”이라고나 할 黑人問題의 歷史的 由來와 그 深刻性을 公認히 생각하게 만드는 強烈한 呼訴力을 가진 風景이 아닐 수 없었다.

韓國 飲食店이나 日本 飲食店이 없어 遺憾이라면서 Canfield 氏가 案内해 준 곳은 메트로이트에서도 이 들난 中國 飲食店. 飲食 때문에 苦生스럽다는 속스러우나 그러나 切實한 筆者의 呼訴에 Canfield 氏가 全의으로 同情적이었음은 千萬多幸한 일이었다.

이곳의 女主人은 淸탁에도 10年前에 中國人 男便을 따라 美國으로 건너왔다는 東北地方 出身의 日本人이었다. 매콤하고 산뜻한 맛이 나는 것이 먹고 싶다고 하였더니 그 맛이 제법 우리네의 고추장에 박은 무우판지에 가까운 것을 내어오기도 하고 쌀밥을 곱배기로 勸하는 등 相當한 歡迎이다. 새우와 野菜를 主材料로 한 메인·딧슈의 淡泊함이 좋다고 Canfield 氏의 食慾도 한결 旺盛한 가운데 美·日·中語가 뒤범벅이 된 對話가 이력저력 무르익어가니 지난 10日間 母國語란 한마디도 所用되는 일이 없었던 東方小國의 나그네의 가슴에는 부질없는 挫折感이 새삼 크게 들기도 한다.

저녁 豫定은 매마침 美國을 訪問中인 東歐의 U國 및 R國의 世界에너지會議 關係者들과 프랑스의 EDF 代表, 그리고 韓國의 筆者를 爲한 Mr. Cisler 招待의 reception 과 dinner 에 參席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어제 밤을 제대로 눈을 붙여 보지 못한 탓인지 疲勞가 掩襲하여 萬事가 뒤참기만 하다. 缺禮에 對한 連絡과 解明을 Canfield 氏가 快히 맡아 주었으므로 安心하고 靛靚 벗어 던지고 寢臺에 덩군다.

4月 18日.

오늘은 Detroit Edison 會社 所屬 St. Clair 火力發電所 第7號機(50萬Kw)의 竣工式에 參席하는 날.

Cisler 氏 夫人, R國의 世界에너지會議 國內委員會 委員長 G 氏 夫妻, 同事務局長 S 氏 夫妻와 筆者等은 Detroit Edison 會社 會長室 技師長(Executive Engineer) D. E. Hart 氏의 案内로 現場으로 向한다.

Huron 湖의 물이 南쪽의 Erie 湖로 流入하기 前에 St. Clair 江과 St. Clair 湖를 거치게 되는데 이 發電所는 St. Clair 江 西岸인 美國側에 位置하고 있다. 漢江 浬의 거의 倍는 되어 보이는 江流의 對岸은 캐나다領이다. 고기비늘 같은 波動이 구비치는 江流의 흐름이 쌀쌀한 날씨에 제법 거세다. Superior 湖 沿岸의 鐵鑛石을 下流의 製鐵工業地帶로 運搬하는 배인 듯 노르웨이國旗를 단 貨物船이 한隻 바로 눈앞을 미끄러져 내려간다.

觀望用 테라스며 食堂이며 賣店이 開拓時代의 뉴우·잉글랜드風으로 꾸며진 이 格調 높은 자그마한 호텔은 勿論 觀光客을 對象으로 만들어진 것. 자칫 빛 輿論의 回顧主義의 貴族趣味가 新大陸에서 大成한 유럽移民의 後孫들의 祖上의 淸舊大陸에 對한 鄉愁 같은 것을 풍겨 주고 있다.

Cisler 氏 夫人은 飲食調攝을 하고 있어 淡泊한 것만을 골라 極히 少量 먹는데는 마는듯 하고 主로 對話를 즐긴다. 筆者 亦是 別로 口味가 없어 主로 對話를 傾聽하기로 한다. R國의 G 氏 夫妻와 S 氏 夫妻는 모두 快餐健談派에 對話에도 오히려 主導權을 잡는 社交家들이다. Hart 氏와 더불어 無難한 話題를 適當히 이어가면서 나이프와 포크를 繼續 驅使하는 S 氏와는 너무나 對照의인 人物이 바로 P國의 B 教授. 東歐의 平原의 曠野새가 들쉴 풍길듯한 短身瘦軀의 農民型인 氏는 Cisler 氏의 周旋으로 電力關係 交換教授로 美國에 長期 滯留中이라고 한다.

食事を 끝낸 一行은 巨大한 發電所 本館建物の 發電機 옆에 마련된 竣工式場으로 案内되었다.

教會牧師의 祝禱로 始作되어 Detroit Edison 會社社長 Edwin George 氏의 人事, 會長 Cisler 氏의 人事 等의 順序로 進行된 式은 賓客들이 新設機의 制御室을 돌아보고 키이를 둘러보고 하는 場面이 TV 畫面에 映像되는 것으로써 끝이 났다. 우리 一行 外에도 日本, 오거나와, 印度 其他 여러 나라의 電氣關係 人士들이 旅行中 또는 長期 滯留中에 이 竣工式에 招請되어 參席하고 있었다.

無味乾燥한 數字의 羅列을 最少限度로 줄이고 需用家의 便益 增大와 快適한 電化生活의 비준 같은 本質의인 命題에 力點을 둔 演說者들의 이야기는 于先 自畫自讚型 虛勢나 悲憤慷慨型 教訓 같은 것을 強賣하지 않아서 좋았고 때로는 微笑를, 때로는 哄笑를 聽衆들로부터 자아내는 餘裕있는 유우모어가 곁들여 있어 더욱 좋았다.

〔備考〕

Detroit Edison 會社 現況 (1968年)

1. 施設容量(Kw)	5,403,600
2. 發電量(Kwh)	27,467,300,000
(이밖에 購入·交換電力이 571,549,000Kwh 있음)	
3. 需用家數	1,475,561
家庭用	1,358,684
商業用	114,383
工業用	1,302
其他	1,192
4. 販賣電力量(Kwh)	25,594,729,000
家庭用	6,990,044,000
商業用	4,485,764,000
工業用	12,605,066,000
其他	1,513,855,000
5. 營業收入(弗)	443,275,000
家庭用電力	166,589,000
商業用電力	108,722,000
工業用電力	129,421,000
其他收入	38,543,000
6. 從業員	
總數(名)	8,031
時間當賃金(弗)	4.39
從業員 1人當 需用家數(名)	901

4月 19日.

이탈리아에서 約束된 時間에 Cisler 氏와 그의 事務所에서 面談. 年中無休로 오직 일단을 삶의 보람으로 안다는 氏의 事務所에는 Miss Lehman 以外에 Miss Oddy 라는 老婦人(前者가 45~50歲 程度로 보이는데 對하여 後者는 60歲는 넘었을 것으로 보였으나 勿論 確認할 道理는 없었음)과 젊은 女職員 한 사람 都合 3名의 女性이 秘書로서 勤務하고 있었다. 10坪 남지한 房 3個 中の 하나가 Mr. Cisler 的 執務室인데 中央에 놓인 長方形 卓子和 椅子 몇個가 應接用으로 使用되고 있는 至極히 簡素한 事務所이었다.

對話의 本論은 明年의 韓國行事的 準備態勢와 成功的인 行事が 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해야 될 必要性에 關한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겠으나 重要하다고 생각된 對話의 要點을 記憶을 더듬어 整理해 보면 아래와 같다.

『大韓電氣協會의 會長이 바뀐 事實이 明年의 行 事 開催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인가?』

——本質의 으로는 아무런 變動이 없다. 後任者인

丁會長도 前任者인 朴會長과 다름없이 이 行事的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그 成功的인 開催를 爲하여 最善을 다해야 된다는 決意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朴將軍(氏는 朴英俊 前會長을 언제나 “General Park”이라고 부른다)의 協會에 있어서의 今後의 身分과 役割은 무엇인가?』

——“顧問”으로서 元老의 役割을 하게 되어 있으며 明年 行事に 關해서는 特히 丁 新會長과 密接한 協調下에 積極的인 參與를 하게 될 것이다.

『Jim(James Cook 專務理事를 그는 이렇게 愛稱한다)을 通하여 明年 行事的 基本計劃이 잘 짜여져 있다고 듣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規模와 性格의 行事を 잘 치루기 爲하여서는 “돈”과 “사람”의 二大要件이 質量 兩面으로 充分히 具備되어야만 하는데 여기에 關해서는 어떠한 狀況에 있는가?』

——(若干의 沈默)……基幹的인 關係者들의 理解와 參與意識이 確固해져 가고 있으므로 두가지 要件이 모두 支障없이 確保될 것으로 展望한다. 但個人的인 意見이 許諾된다면 先進國의 경우와 같은 水準으로 順調롭고 容易하게 모든 일이 척척 잘 되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 없지도 않다는 것을 附言하고 싶다.

『1964年의 日本에서의 行事は 여러모로 훌륭하고 印象的인 것이었다. 韓國에서의 行事も 이에 못지 않은 훌륭한 것이 되도록 努力해 줄 것을 바란다.』

——最善의 努力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本人은 勿論이고 關係者들의 一致된 決意이다. 但 日本,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先進工業諸國과 開發途上에 있는 韓國과의 國民總生産 또는 國民所得의 隔差가 어느 程度인가에 對하여 氏의 一考 있으면 多幸으로 알겠다.

『!! 하하하! 아무쪼록 잘해 봅시다!』

——同感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와 같은 副次的인 對話가 意外的인 方向으로 進展되고 筆者로서는 想像조차 하지 않았던 結果를 낳게 되었음을 記錄할 必要를 느낀다.

『앞으로의 旅程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明日 이곳을 떠나 바로 歸國길에 올라야 됩니다.

『모처럼의 旅行인데 美國에 좀더 滯留할 수는 없겠는가?』

—出張命令이 15日間이라서 4月 21日까지는 歸國해야 될 立場에 있습니다.

『韓國의 世界에너지會議(WEC) 加入申請의 問題點과 6月初의 Ankara 國際執行理事會에 關하여 아는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마침 WEC의 會長을 團長으로 하는 U國 視察團과 次回 總會 開催國인 R國 視察團이 訪美旅行中이며 數日後 Chicago에서 열리는 American Power Conference에 모두 參席하기로 되어 있다. 나와 같이 이 會議에 參席도 하고 이들과 接觸을 갖는 것이 韓國의 加入承認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Jim도 數三日內에 歸國豫定이니가 떠나기 前에 한 번 더 만나고 가는 것이 좋겠고……』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 感謝합니다마는 命命에 움직이는 몸이 되어서 저의 獨斷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구의 承認을 받으면 되는가?』

—丁 協會長의 承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丁會長에게 곧 電報를 치겠다.』

이리하여 Cisler 氏의 指示를 받아 Miss Lehman이 起案하여 發信한 電文의 寫本이 直席에서 筆者에게 手交되었는 바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Dear President Jung:

Requesting Tae-In-Sun remain here until Friday to work on program for TAE(筆註: Thomas Alva Edison) Celebration. Will cover expenses while here. Is this agreeable to you. Letter follows with details. Best wishes,

Walker Cisler  
DETEDISON”

이리하여 美國出發을 4月 26日로 豫定하고 一週日間の 滯留日程과 飛行機의 豫約更新 등을 筆者와 相議해 가면서 시원스럽게 決定하고 處理하는 Miss Lehman의 勞苦에 對하여 謝意를 表하고 있노라니 會議가 있어 나간다는 Mr. Cisler가 滯留中の 費用에 쓰라고 封筒에 넣은 돈을 쥐어 주고 하는 말이 直譯하여 「나는 나의 親舊가 旅行途中에 돈으로 苦生하는 것을 願치 않는다.」라고. 眼光이 炯炯하고 銀髮童顏의 容貌가 절로 사람을 威壓하는 이 非凡한 國際電氣人이 邪氣없는 微笑를 띠우면서 베푸는 好意를 感謝한 마음으로 받아 드린다.

午後에는 亦是 Detroit Edison 會社의 Tuttle 氏 夫妻가 筆者의 案内役을 맡아 주었다. 于先 點心食事를 어디서 하면 좋겠는가를 묻기에 서슴치 않고 어제의 中國飲食店을 提議한다. 이들 亦是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中國飲食이라면서 매우 滿足스러운 會食이 되었다.

데트로이트에는 韓國人 居住者가 醫師를 筆頭로 數百名은 될 것이고 日本人數도 相當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폴리네시아 飲食店까지 있는 大都市 데트로이트에 韓國飲食店이나 日本飲食店이 하나도 없는 것은 奇異한 일이라는 것이 Tuttle 氏 夫妻의 一致된 意見이었다.

데트로이트 最高의 建物の 觀望臺, 2萬名을 收容한다는 室內 籠球競技場 등 市内 名所를 이리저리 求景시켜 주는 이들의 細心한 親切이 初面의 사이 이면서도 어느듯 年來의 舊面이나 되는 것 같은 親近感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結局 社交나 對人關係에 있어 生得의 差異 같은 것이 西洋人和 東洋人 사이에 存在한다고나 보아야 할 것인가?

데트로이트의 밤의 오피스街는 若干 誇張하면 죽음의 거리로 變한다. 人跡이 거의 끊긴 넓은 거리에는 疾走하는 自動車가 간간이 高요를 깨뜨릴 뿐. 多幸히도 街路燈은 安堵感을 줄만큼은 밝게 비치고 있으나 사람없는 거리의 街路燈이란 외롭기만한 가운데 검은 皮膚의 늙은이가 한 사람 酒精 냄새를 확 풍기면서 흥얼거리면서 지나간다. 「밤거리를 혼자 나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던 어떤 白人의 말이 문득 생각이 난다.

머리말의 라디오는 北傀에 依하여 擊陰된 美國 偵察機의 事件에 關聯된 뉴우스를 오늘도 이모저모로 報道하고 있다.

4月 20日.

데트로이트 近郊 Dearborn 에 있는 Greenfield Village 를 見學.

이곳은 自動車王 Henry Ford 가 巨額의 私財를 投入하여 1929年 10月 21日에 開設한 施設로서 過去 3世記에 걸친 美國民의 生活를 生生하게 再生시켜 歷史와 傳統의 保存에 寄與하고 있는 훌륭한 文化財이다.

잔디와 樹木과 道路가 公園 모양으로 가꾸어진 260에이커의 넓다란 垆地 위에 100個 가까운 歷史的인 建物들이 散在해 있는데 그 大部分이 元來의



New Jersey州 Menlo Park의 에디슨연구소의 겨울 風景(1880年). 中央의 긴 建물이 本館이고 그 뒤의 큰 建물이 機械工場이다. 앞의 2層 建물은 圖書室과 事務室이다. 오늘날 우리가 Greenfield Village에서 볼 수 있는 이 研究所는 이곳으로부터 分解, 運搬하여 原狀 그대로 다시 組立한 것이다.

所在地에서 操心스럽게 分解되어 이곳으로 運搬된 後 다시 原狀 그대로 組立되어 現在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한다.

初期의 美國人の 家庭집, 商店, 學校, 製粉所 등을 爲始하여 여러가지 生活必需品를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 썼는가를 보여주는 各種 手工業施設이 옛 모습 그대로 保存되고 있는 以外에 Abraham Lincoln, Noah Webster, Stephen Foster, Robert Frost, Luther Burbank, William Holmes McGuffey, George Washington Carver, Wilbur and Orville Wright, Charles Steinmetz, Thomas Alva Edison, Henry Ford 등 美國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偉大한 人物들의 生活와 業績에 密接한 關聯이 있는 歷史적인 建物들이 原狀 그대로 保存, 維持되고 있다.

發明王 토마스·앨바·에디슨(Thomas Alva Edison)에 關聯된 建物로는 Menlo Park Compound와 West Orange Laboratory가 있다. 炭素電話機, 蓄音機, 最初의 實用的 白熱燈, 送配電系統設備 등을 筆頭로 —이 列擧할 수 없을 만큼 數 많은 發明과 發見이 쏟아져 나온 Menlo Park Compound는 壯年期의 에디슨이 12年間(1876~87)

을 그의 人生을 불태우던 곳으로서 人類가 오늘날의 文明生活을 享有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 이모저모로 貢獻한 綺羅星 같은 優秀頭腦들이 心血을 기울여 研究에 沒頭하였던 無數한 據點. 中에서도 特히 손꼽을 만한 文明의 產室이라고 하겠다.

에디슨을 너무나 崇拜하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 에디슨에 特히 關心을 表明하는 사람이면 率先하여 案内를 맡고 나선다는 管理人(curator) Robert G. Koolakian 氏는 情熱的인 Armenia人 二世. 웬만한 에디슨 傳記 좁은 學術 口述해 낼 수 있을 程度로 에디슨에 關한 知識이 該博한 紳은이다.

寫眞에서 보아온 낮은 場所에 直接 서서 옛모습 그대로의 冊床이며 椅子며 實驗器具며 노오트며 發明品들을 두루 살피고 만져보고 하는 사이에도 Koolakian 氏의 熱誠的인 說明은 그 질주를 모르고 繼續된다.

筆者의 姓의 英字表記인 TAE가 Thomas Alva Edison의 머릿字와 一致하는 것이 偶然의 一致치고는 너무나 멋이 있다고 愉快해 하는 그는 明年의 國際에디슨誕生日記念祝典을 韓國이 主擧하는데 對하여 眞心으로 敬意를 表한다고 附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Menlo Park의 에디슨연구소에서 最初의 實用的인 白熱電燈이 點火된 瞬間의 光景(1879年 10月 21日). 右로부터 세번째가 토마스·앨바·에디슨.

## 〈시카고(Chicago)〉

4月 21日.

낮 飛行機로 시카고로 간다. 機上에서 내려다 보이는 美國 第2의 大都市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의 雄大함이 Michigan 湖의 茫茫함과 시원스러운 調和를 이루고 있다. 五大湖의 總面積이 韓半島의 넓이보다도 더 넓고 Michigan 湖의 넓이만도 南韓 面積의 6割에 該當한다니 湖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다와 같이 보이는 것도 當然하다고 하겠다.

호텔에 旅裝을 꼰 다음 韓國總領事館을 찾아가서 旅行國 追加手續을 마친 다음 日本總領事館에 가서 入國비자를 發給받았다. WEC의 日本國內委員會 委員長이며 國際執行理事會 副議長인 井上五郎(Goro Inoue)氏를 歸國하는 길에 禮訪하고 韓國加入問題에 對한 協力을 韓國人 自身の 口로 付託도 하고 謝意도 表하는 것이 좋겠다는 Cisler 氏의 勸告도 있고 日本電氣協會에도 들러 볼 必要가 있고 해서 數三日 머무르기로 作定한 것이다.

注文한 食事を 房으로 나르다 주는 倂의 英語가 異常야릇한 사투리의 어설피른 것이기에 出生國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希臘이라고 한다. 宿泊한 동안 여러 사람의 倂가 내 房을 드나들었는데 希臘系, 스페인系, 中國系, 黑白混血系의 사람들 뿐이고 金髮碧眼의 北歐系가 하나도 없었음은 시카고라는 都市의 cosmopolitan 的의 性格의 表現이기도 하겠고 더 파고 들어간다면 美國이라는 巨大한 人種의 도가니(melting pot)가 힘찬 稼動을 數百年間 繼續하는 동안에 凝結되고 形成된 社會階層의 斷面을 들어낸 것이라고도 하겠다.

4月 22日.

American Power Conference 的의 第31次 年次總會에 參席. 場所는 나의 宿所인 Bismarck Hotel 과 길을 사이에 두고 비스듬이 位置한 Sherman House Hotel 的의 大會議室.

約束된 時間에 Hart 氏와 만나니 登錄을 마친 다음 會場의 最前列의 座席까지 案内해 준다. 會議의 進行을 잘 볼 수 있는 자리이어서 多幸이기는 하나 千名도 넘어 보이는 人員이 滿場한 會場에 몇 時間을 尻박 앉아 있어야만 되니 若干의 苦役이 아닐 수 없다. P 國의 B 教授와는 舊面의 사이이나 U 國의 WEC 關係者들과는 初面의 人事를 나눈다. Cisler

氏와 U 國의 電力電化相이며 WEC 會長인 N 氏도 亦是 最前列 座席에 나란히 앉아 會議의 進行을 지켜 보고 있다. 〈會議內容 省略〉

다음 順序는 午餐會. 등근 食卓에 7, 8名씩 둘러 앉게 名札이 놓여 있고 正面 壇上에는 主催側 및 貴賓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筆者는 Detroit Edison 會社의 Hart 氏 外 1名, P 國의 B 教授, U 國의 WEC 國內委員會 委員長 外 2名, 그리고 프랑스 胎生으로 Washington, D.C.에서 會社를 經營한다는 Daniel Lefebvre 氏 等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좁은 食卓에 5個國 사람들이 誼 좋게 둘러 앉아 對話를 나누고 壇上의 演說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는 사이에 自己 棼 食事を 점잖게 進行시켜야 하니 多少의 技術이 必要한 일 이기는 하였으나 얻기 드문 滋味있는 經驗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의 演說 가운데서 壓卷은 亦是 Cisler 氏와 U 國의 電力電化相 N 氏의 人事말이었는데 滿場한 參席者의 熱々한 拍手소리는 決코 儀禮的인 것이 아니라 眞正한 共感과 歡迎의 表現이라고 斷定하기에 充分한 것이었다. WEC 的의 國際執行理事會 議長과 會長이라는 二大重責을 맡고 있는 이들 두 사람의 世界에너지界 巨物들이 한결같이 強調한 에너지分野에 있어서의 國際的 協調의 必要性과 重要性에 對하여서는 異論의 餘地가 있을 수 없겠고 우리나라의 關係人士들의 이 問題에 對한 보다 높은 關心과 보다 活潑한 參與가 앞으로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午後부더의 技術關係 分科別 會議는 筆者와는 因緣이 없는 것이기에 시카고 觀光에 나서기로 한다.

Lefebvre 氏의 「좋다면 同行하겠다.」는 親切한 提議를 고맙게 받아드리고 짧은 時間에 가장 印象的인 것을 보기로 하여 合意된 行先地는 美國에서도 質量 兩面으로 上位에 屬한다는 시카고美術館(Art Institute of Chicago), 마칠 프랑스의 EDF 代表 두 사람을 로비에서 만나 L 氏의 紹介로 人事를 나눈다. 우리의 行先地를 이야기하니 自己들도 가겠다고 해서 結局 넷이서 同行이 된다.

靑銅彫刻의 獅子 두마리가 正面 兩側에 威嚴있게 버티고 서 있는 石造建物の 이 美術館에는 어설피게나마 “泰西名畫”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의 腦

裏에 새겨져 있는 그림의 原畫가 너무나도 푸짐하게 展示되어 있었다.

꿈에서나 보았을 珍羞盛饌이 갑자기 自己 눈앞에 놓여지고 그것이 到底히 먹어치울 道理가 없을 程度로 엄청난 分量의 것이라는 것을 안 시골뜨기의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맛보면서 이 房 저 房을 돌아 본다. 要所 要所에 配置된 監視員들의 눈초리가 손님들에게 露骨의인 不快感을 주지 않도록 애써 努力하면서도 빈틈없이 빛나고 있다.

「프랑스의 美術品이 美國으로 繼續 流出되고 있는 傾向은 結局 돈의 힘의 所致이며 섭섭한 일이라고 하겠다.」고 淡淡한 表情으로 말하는 Lefebvre 氏는 二次大戰中 自由프랑스側에서 空軍과일로트로 從軍, 美國人인 現夫人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美國에 定着. 現在 Electronic Highway Design 會社를 經營하고 있다. r 發音이 徹底하게도 프랑스語式인 點을 除外하고는 完整한 英語를 驅使하는 氏이 몸가짐은 그러나 亦是 “에스프리(esprit)”로 特徵지어지는 Français의 것이지 American의 것은 決코 아니다.

Lefebvre 氏 및 EDF 사람들과 作別을 告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國民學校 教師들의 示威行列에 맞부딪혔다.

“아무개 知事여! 당신의 約束은 어떻게 되었는데가?” 知事의 待遇改善公約 不履行에 對한 抗議의 聲이 모이다. 數百名의 教師들의 거의 切半이 검은 皮膚의 사람들로 보인다. 步道를 졸지어 걷는 그들의 表情은 意外로 明朗하나 豐饒한 社會치고는 추대접 받고 있다는 美國의 敎員들이 不遇한 社會階層에 屬해 있는 것만은 事實인 것 같다.

「길을 막아서 未安합니다!」 검은 색깔의 귀여운 女敎員이 愛嬌를 떨기에 「千萬의 말씀. 成功을 빕니다.」 하였던니 고맙다는 소리가 重唱이 되어 돌아온다.

### <뉴우욕(New York)>

4月 23日.

아침 飛行機로 뉴우욕으로 간다. 뉴우욕 求景을 했느냐고 Cisler 氏가 묻기에 못했다고 하였더니 1泊 2日의 스키놀을 짜도록 Miss Lehman에게 指示가 있었다고 한다. 細心한 配慮에 오직 感謝할 따름이었다.

宿所는 東42番街의 Biltmore Hotel의 Cisler 氏 專用 suite. 寢室과 事務室 兼 應接室로 2個의 房을 長期契約으로 빌려 놓고 Cisler 氏 本人은 勿論이고 會社關係者나 賓客 등이 隨時 使用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寢室 구석에 놓인 室內體統用 自轉車는 70고개를 넘은 Cisler 氏의 壯年 鬚鬢 程度로 彈力性있는 健康體와 淸淨한 紅顏의 根源인 듯. 旅行時 같은 不得已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하루 1時間(?) 自轉車 바퀴돌리기를 거르는 일이 없다고 한다.

「종와하는 술을 마음대로 마시라.」면서 Rowland 뉴욕事務所長이 열어 보이는 술櫃에는 열댓가지 렛텔의 술瓶이 요란하게 늘어서 있어 Cisler 氏가 술을 좋아하느냐 물었더니 의젓은 主로 接客用이라면서 Cisler 氏의 好物인 葡萄쥬우스의 在庫를 열어 보이는 Rowland 氏의 古김살 없는 微笑가 장난꾸러기 어린아이 같기만 하다.

La Guardia 飛行場에 마중을 나와 준 Gregory Griffith 君은 大學院에 다니는 政治學徒. 市內觀光 案内에 이를 동안 受託해 준 Tom Sweeney 氏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結婚 같은 것은 생각조차 않고 있는 깔끔한 性格의 越南歸還兵. 高齡으로 얼굴이 주글주글하지만 人事性이 놀라운 Miss Julia Hoph는 唯一한 女職員. 以上이 Rowland 所長이 거느리고 있는 出張所의 食口들인데 所長 以下 全員이 모두 約束이나 한듯이 獨身者라고 한다.

엘파이어·스테이트·빌딩의 眺望臺에서 내려다 본 뉴우욕은 로마나 빠리와는 異質의인 것이면서도 亦是 人間과 人生을 생각하게 만드는 強力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바둑판처럼 整然하게 區劃된 無數한 테두리 속에서 하늘로 하늘로 앞을 다루어 뻗어 올라간 鐵筋과 콘크리트와 유리의 集成物들이 協演하는 다이내믹한 交響樂! 길이 15哩의 센트랄·파아크의 憂愁와 멀리 가물거리는 自由의 女神像의 浪漫이 없었던들 이 어마어마하게도 巨觀한 都市는 너무나도 엄청난 物量의 重壓으로 人間을 갈아뭇게어 버릴 것만 같다.

빌딩의 溪谷에는 不斷한 움직임이 있다. 개미나 성냥갑처럼 人間과 車輛의 물결이 까마득히 내려다 보인다. ……뉴우욕의 거리의 骨格이 그 모습을 거의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19世紀의 末葉……어떤 나라의 首都라는 거리에는 풀과 흙과 나무로 만

든 게 마치 같은 構造物들이 名色이 家屋이라고 어수선하게 늘어진 가운데 흙먼지와 흙탕물이 支配하는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길에는 順한 것만이 그래도 長點이라면 長點이 있던 蒙昧한 群像들의 가냘픈 삶이 惝怳하게 이어지고 있었다……若干 新派調인 感傷에 젖어 있노라니까 Sweeney 氏가 뉴우욕의 印象을 묻는다. “Just overwhelming!”이라고 對答하고 보니 區區하게 긴 말이 必要가 없다.

人種의 도가니인 美國 中에서도 特別히 뉴우욕은 그 cosmopolitan 的 性格에 있어 美國의 한 都市라기보다는 「世界都市」라고 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千餘萬의 人口中에서 이탈리아系, 유해系가 各各 200萬을 헤아리고 黑人系가 150萬 以上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常識에 屬하는 이야기이지만 다음의 統計(1950年)는 이 都市의 世界無比의 cosmopolitan 的 性格을 示唆하는 좋은 資料라고 하겠다.

뉴우욕市 總人口(5個區) : 7,781,984

[備考: 隣接한 數個郡을 合한 大뉴우욕의 人口는 10,694,633]

外國出生者 人口 : 1,558,690

內 譯(3萬 以上) :

이탈리아	275,697	유 배	254,262
英 國	237,918	獨 逸	202,519
폴 덴 드	81,125	스 페 인	77,447
러 시 아	74,745	항 가 리	39,752
그 리 스	33,701	프 랑 스	32,623

自然의 攝理가 創造해 낸 모든 色調의 人間들이 뒤범벅이 되어 바쁜 걸음으로 生을 營爲하는 뉴우욕의 거리는 閑暇스럽게 人種이나 民族의 差異를 느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sophisticate 된 都市가 아닐 수 없다.

4月 24日.

發明王 Thomas Edison 의 令息 Charles Edison 翁 禮訪計劃은 連絡을 取해본 結果 翁이 老患으로 一切의 面會를 謝絶하고 있어 成事하지 못하였으며 好意는 泯沒없이 傳言하겠다는 秘書의 確約으로 滿足할 수 밖에 없었다. (얼마전에 翁의 訃音을 듣고 혼자서나마 冥福을 빌었다.)

Sweeney 氏의 案内로 博物館을 爲始하여 몇군데 名所를 求景. 晝食은 前日 저녁에 찾아 갔던 日本 飲食店을 Sweeney 氏가 提議하여 또 한번 가게 되

었다. 서투른 짓가락 솜씨의 白人들이 如前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事業 大繁昌이다. 日本은 차림의 中年의 女給들의 손이 모자라서 倅어비스가 圓滑치 못하기에 왜 사람을 더 雇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求人難으로 그러하니 本國에 돌아가거던 사람을 求해서 보내 줄 수 없겠느냐고 正色을 하고 對答하는 품이 또 한번 日本人으로 誤認받은 것이 틀림이 없었다.

저녁 飛行機로 데트로이트로 돌아가다. 그동안 親熟하여진 DAC의 從業員들이 반갑게 맞아 주니 數日間 나들이 갔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錯覺을 일으키게 된다.

Detroit Athletic Club(DAC)은 데트로이트市の 知名人士들이 會員으로 되어 있는 클럽으로서 여러 가지 運動施設이며 娛樂施設이 갖추어져 있는 以外에 相當數의 客室과 食堂, 빠아 등을 가지고 있어 會員이나 會員이 推薦한 旅行客의 宿所로서 提供되기도 한다. 筆者는 勿論 會員인 Cisler 氏의 賓客資格인데 Cisler 氏의 이름이 입에 오르면 모든 從業員들이 거의 例外없이 “He’s quite a man!”이라고 말을 꺼내는 것으로 보아 그의 이 고장에 있어서의 人氣의 度を 짐작할 수 있었다.

4月 25日.

오늘은 데트로이트를 떠나 歸國길에 오르는 날이다.

떠나기에 앞서 約束된 時間에 Cisler 氏를 事務室로 訪問. 數日前에 유럽으로부터 돌아오자 곧 地方出張에 나갔던 Cook 專務理事도 時間에 맞추어 돌아와서 자리를 같이하였다.

對話의 內容은 지난번과 비슷한 것이었으나 Cook 氏의 同席으로 좀 더 具體的인 話題가 加味되기도 하였다. Cisler 氏가 關與하고 있는 여러가지 일(註) 中에서 世界에너지會議(WEC) 다음으로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 에디슨財團의 「國際에디슨誕生日記念 祝典」行事라고 위뜸해 주던 Cook 氏의 말 그대로 Cisler 氏의 明年 韓國行事에 對한 關心은 至大하다는 것을 거듭 認識할 수 있었다.

(註) 主要한 것만을 列記하면 아래와 같다.

Chairman of the Board—Detroit Edison Company  
President—Thomas Alva Edison Foundation  
President—Atomic Power Development Associa-



tes, Inc.

President—Fund for Peaceful Atomic Development, Inc.

President—Power Reactor Development Company

午後 2時 테트로이트發 American Airlines 機로 시카고까지 가서 샌프란시스코行 TWA 機로 돌아간다.

萬米의 高空을 나르는 제트機이지만 快晴의 날씨 德分에 下界의 미씨피의江이며 大平原이며 록키山脈의 峻嶺이 地圖冊을 크게 擴大해 놓은 모양으로 鮮明하게 내려다 보인다.

東에서 西로, 그리고 西에서 東으로, 最初의 美大陸橫斷鐵道の 完成을 눈 앞에 두고 工事に 匹치를 올리고 있던 Union Pacific 과 Central Pacific 의 兩鐵道會社의 線路가 Utah 州 Promontory 에서 歷史的인 連結을 본 것이 1869年 5月 10日로 記錄되어 있으니 今으로부터 꼭 100年前의 일.

그 後의 100年 동안에 여러 가닥의 大陸橫斷鐵道와 하이웨이가 峻峻한 山脈과 不毛의 砂漠을 누비고 建設되고 또 建設되어 人間의 自然征服史에 또 하나의 金字塔을 쌓아 올렸으니 까마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黑灰色의 실오라기의 連綿한 阿斯팔트에 담겨진 事緣인들 얼마나 많으며 뿌려진 苔인들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Sierra Nevada 山脈의 景勝地 Yosemite 國立公園의 瀑布를 아득히 내려다 보고 있노라니 눈부신 綠色의 天地가 忽然히 眼下에 展開되니 이것이 바로 世界에서도 豊饒하기로 이름난 California 平野이다. 褐色과 灰色과 白色의 單調로움이 싱싱한 綠色의 亂舞로 突變하는 妖術과도 같이 기막힌 大自然의 숨씨는 實로 놀랍도록 印象的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 <日本으로>

4月 26~27日.

아침 9時發 JAL 機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Tokyo 로 向한다.

途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暫時 寄着. 호놀룰루 空港의 냄새는 西洋보다는 오히려 東洋에 가깝다. 記念品賣店의 日系 女人들의 기모노 차림과 말솜씨가 Tokyo 나 Osaka 空港이 無色할 程度로 日本의 이다. 日本人 觀光客들의 大暴 塔乘으로 閑散하던

飛行機 座席이 쉽게도 메꾸어져 버린다.

香港이나 하와이 觀光旅行 짧은 하룻은 月給쟁이나 農民들까지도 손쉽게 나서게 되었다는 그들의 處地가 부럽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國民總生産 世界第 3位의 威力에 새삼 壓倒되는 느낌이다.

Tokyo 時間 午前 11時 15分에 國際日附變更線을 通過. 4月 26日이 4月 27日로 바뀐다. JAL 社長 名義의 通過證이 모든 乘客에게 交付된다.

午後 4時頃 Tokyo 的 Haneda 空港에 到着. 알고 보니 오늘이 바로 “Golden Week”(註)가 始作되는 日曜日이다. 모든 호텔이 超滿員狀態라면서 이리 저리 電話로 問議해 준 案内嬢의 親切 德分에 Hotel New Otani 에 一室을 얻어 旅裝을 본다.

(註) 4月末부터 5月初에 걸쳐 아래와 같이 休日이 繼續되어 日本 全國이 해겨·부음으로 들끓었다.

- |             |               |
|-------------|---------------|
| 4. 27 (日曜日) | 4. 29 (天皇誕生日) |
| 5. 1 (에이메이) | 5. 3 (憲法記念日)  |
| 5. 4 (日曜日)  | 5. 5 (어린이날)   |

4月 28日.

아침에 日本電氣協會로 連絡을 取하니 21日頃 돌아온다면 사람이 連絡이 없어 어찌 되었나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白髮의 S氏가 호텔로 달려와 주었다. 半달 後로 닥아온 定期總會 準備에 精神없이 바쁘련만 變함없는 親切이 무척이나 고맙다.

우리 協會 代表로 參席할 許順五 韓電理事의 招請狀 具備書類는 이쪽 希望대로 다 갖추어서 發送하였으리 祝詞를 通譯없이 韓國語만으로 하기로 승낙된 것도 그렇게 確定되었다고. 許理事의 經歷이며 嗜好 같은 것을 알고싶어 하는 것은 接待에 疎忽함이 없도록 하기 爲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S氏가 내어놓는 두툼한 便紙봉투는 또하나의 즐거운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다. 昨年 가을에 우리 協會 招請으로 韓國에 다녀간 일이 있는 四國電力會社의 中川以良(M. Nakagawa) 會長의 懇曲한 便紙의 事緣인즉 歸國길에 四國에 들러 數日間 놀다 가기 바란다는 招請이었으며 丁會長에게는 이미 片紙를 내어 諒解를 求해 놓았다면서 그 寫本까지 同封되어 있었다.

日本列島の 北個 섬 가운데서 四國에만은 아직 가보지를 못하여 機會가 있는데로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事實이었고 四國電力에서도 이번 旅行길에 關하여서는 알고 있는 터이었으나 日程이 너무 바빠

斷念하고 있었던 것이 意外的 方向으로 일이進展되어 모처럼의 機會가 주어진 셈이다.

四國電力 東京支社와 協議한 結果 來日 아침 新幹線便으로 出發하기로 決定하고 포근한 봄 햇살에 如前히 繁榮과 泰平歲月을 謳歌하고 있는 이웃나라 日本의 首都 거리를 이리저리 거닐어 본다.

4月 29日~5月 6日. <省露>

5月 7日.

連休의 騷亂과 興奮도 이제는 갈아앉은 듯. 부지런한 日本人들은 또다시 일벌처름 秩序있게 일들을 하고 있다.

午後에는 動力爐核燃料開發事業團 理事長 井上五郎(Goro Inoue)氏를 事務室로 訪問.

約束된 時間 約 1分前에 應接室로 案内되어 들어가자 正刻에 다른 도어로 氏가 나타난다. 氏와는 지난해 日本電氣協會 總會 때의 舊面의 사이. 바쁘실 텐데 時間을 내어 주어 感謝하다고 하였더니 面會要請에 關한 連絡은 4月末에 받았으나 休暇를 Nagoya의 自宅에서 보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져서 未安하다고 말하는 氏는 疎脫한 人品이 對談者에게 쉽게 親近感과 安定感을 불어넣어 주는 타입.

韓國加入問題가 上程될 6月初의 Ankara의 WEC 國際執行理事會의 展望, 明春에 에디슨誕生日記念 祝典을 主催하는 韓國이 參考로 할만한 日本의 經驗, 2期(4年) 동안 連任하였다가 오는 總會에서 退任하기로 되어 있는 日本電氣協會 會長으로서 追憶에 남는 回顧談 等 여러가지로 이야기의 罅을 피우다 보니 어느덧 約束된 時間이 훨씬 지나고 있었다.

「明年 4月에는 韓國에 한번 다녀가시지요.」 하였더니 「될 수 있으면 時間을 내어 가보고싶지만 主觀없이 바빠서……」라고 말하는 氏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老益壯의 活動家인 點이 Cisler 氏와 좋은 콤피에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고 보았다.

### <歸 國>

5月 8日.

아침 JAL 機便으로 歸國길에 오른다.

Tokyo를 떠난 飛行機는 正西方向으로 날아 山陰地方의 松江(Matsue)에 이르러 機首를 若干 西北으로 틀려 一衣帶水의 바다를 건넌다.

茂盛한 樹木과 肥沃한 農土를 意味하는 빛같이 바로 綠色이라면 눈 아래 忽然히 展開되는 저기 저 白褐色의 山野는 果然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꾸어 왔기에 저렇게도 볼품없는 앙상한 알몸을 白日下에 들어내고 있던 말인가? 反省과 自責은 보다 낫은 알몸을 爲한 발판이 될 수도 있겠지 하고 제법 奇特한 倫理의 世界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느라니 들먹이는 뒷座席의 日本人 旅行者들의 뒷속말: “Hidoi hageyama-desune!”

世界에서 가장 人口가 많은 나라, 世界에서 가장 國土가 넓은 나라, 그리고 世界에서 가장 經濟成長 速度가 빠른 나라—— 崎嶇하게도 이들 차이안트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落後를 挽回하기 爲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조그마한 半島가 바로 나의 祖國. 近代 國家 建設에 이제야 겨우 눈을 뜨고 일어섰지만 두 동강이 난 땅덩어리에 冷酷한 生存競爭의 찬바람은 如前히 세차게 불어 닥치고만 있다.

허리에 칭칭 감긴 非情의 鐵條網이 말끔히 걸어지고 햇빛은 白褐色의 山野를 綠色의 豊饒가 뒤덮게 될 그날까지 얼마나 엄청난 疲憊어린 努力이 우리에게 要求되고 있는가에 생각이 미치니 마음은 장마철 먹구름 같이 어둡고 답답하기만 한 가운데 그 래도 활짝 개인 낮익은 얼굴들이 반색하며 나를 맞 아주는 金浦空港에 내려신다. (完)



Greenfield Village에서의 筆者. 左는 管理人 K氏.